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57호 1판 (음력 6월 16일) 2017년 8월 7일 월요일

오월 광주 전국화 '문화의 힘'

지난 2일 개봉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5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6일 광주시내 한 극장에서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택시운전사는 5.18민주화 운동의 현장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를 태우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운전했던 택시운전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화 '택시운전사' 개봉 5일만에 400만명 돌파

전문가들 "관객 1500만명도 충분히 가능하다"

영화가 끝나자 박수가 이어졌다. 기립 박수가 터져나온 상영관도 있었다. 자막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는 관객도 여느 영화보다 많았다. 〈관련기사 3면〉

평범한 소시민 운전사 만섭이 모는 '택시'를 타고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함께 1980년 5월 20일, 그날의 광주로 떠났던 관객들은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분노하다 현실로 돌아왔고, 먹먹한 가슴을 안은 채 2017년 대한민국을 생각했다.

5·18 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무섭게 질주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일 개봉한 '택시 운전사'는 개봉 5일만인 6일 오후 2시 4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갔다.

또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있게 해준 그 때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영화평들이 인터넷 상에 속속 올라 오는 등 5·18 광주항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개봉 2일 만에 100만, 3일 만에 200만, 4일 만에 300만명의 관객을 모은 '택시 운전사'는 1761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관객을 동원한 '명량'(김한민 감독)의 500만 기록 그리고 '군함도'의 400만 돌파와 같은 속도를 기록했다. 지난 5일까지 광주지역에서는 18만 3000명이 영화를 관람했으며 비슷한 인구 규모의 대전은 11만 명이 관람했다. 부산과 대구는 각각 25만명과 17만여명이 영화관을 찾았다.

'5월 광주'의 모습을 광주가 아닌, 서울의 택시 운전사와 외국인 기자 등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번 영화는 진한 페이소스를 보여준 택시 운전사 역의 송강호를 비롯해 토마스 크레취만, 유해진, 류준열 등 배우들의 열연과 장훈 감독의 담백한 연출, 웃음과 감동, 희망이 어우러진 스토리가 어우러지며 전 연령층의 고른 호응을 얻고 있다.

영화 제작사 쇼박스에 따르면 특히 영화 상영 초반에 극장을 찾지 않는 계층인 50대 관객이 움직이고 10대와 20대 이하 관객들의 관람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관람객들은 고(故)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삶을 다룬 KBS 다큐 '푸른 눈의 목격자'와 그가 당시 찍은 필름으로 제작한 독일 다큐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 각종 인터뷰를 통해 그의 삶을 되새기고 있다. 또 "광주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광주 5·18 묘역에 마련된 힌츠페터의 무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자막이 올라가기 전, 살아 생전의 힌츠페터 기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꼭 김사복(만섭 역할의 모티브)씨를 만나 한국에 가서 그의 택시를 타고 달라진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전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진짜' 택시 운전사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安 대표 출마…국민의당 내분 격화

당권주자 천정배·정동영, 불출마 거듭 촉구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당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도전 선언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대선패배, 제보조작 사건 이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던 안 전 대표가 지난 3일, 8·27 전대 대표 출마선언을 하자 원내에서 날선 비판이 제기되면서 당내부 균열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의 모태인 광주에서는 한 시민단체가 안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안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천정배·정동영 등 국민의당 당권주자 3인방은 6일 일제히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천정배·정동영 의원은 "당 의원 절대 다수가 출마에 반대하는데 안 전 대표는 민심을 거스른 선택을 하고 있다. 당을 사(私)당화하고 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자리 차지하려고 나섰다"며 한목소리로 안 전 대표를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 궐석이 된 당대표 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에서, 바로 그 대선 패배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섰다"며 안 전 대표를 향해 거듭 불출마를 요구했다.

정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6개월 사당화의 그늘 속에 (정당별 지지율) 성적표가 5%다"면서 "사당화는 패배의 길이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안 전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권도전 결심 이유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포석이 아닌 당의 생존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때 국민이 내준 숙제도 다 하지 못하고 당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당의 생존을 위해 독배라도 마시면서 당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출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현 상태에 대해 "심장이 정지돼 쓰러진 환자는 웬만해서는 심장이 다시 뛰지 않는다. 전기충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에도 비판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안 전 대표 측과 그의 출마를 반대하는 측을 중심으로 한 당 내 갈등은 지속할 전망이다. /김형호기자 khh@

북한 수출 3분의 1 봉쇄

유엔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주말인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관련기사 2면〉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안보리는 우선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유엔 관계자와 한국 정부 측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5·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광주지법, 지만원 '5·18 영상고발 화보'도 발행 금지 결정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공분을 샀던 '전두환 회고록'(1권 혼돈의 시대)의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관련기사 6면〉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고, 전 전 대통령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군인들의 폭력적인 시위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5·18을 왜곡하고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5·18 왜곡 내용 삭제 없이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이 "광주지역은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요청한 타지역 법원으로의 이송 신청에 대해서는 근거없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5·18재단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본안) 소송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5·18재단과 5월 3단체는 '회고록을 통한 5·18 역사 왜곡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각각 4000만원씩, 조영대 신부는 5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5·18 시민군을 북한특수군의 폭동이라고 왜곡한 지만원을 상대로 5·18 단체 등이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출판·인쇄·발행·배포 외에 인터넷 게재도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1회 당 10만~200만원을 5·18단체 등에 지급해야 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Completion of SUV Line up

G-Class, GLS, GLE, GLE Coupé, GLC, GLC Coupé, GLA
메르세데스-벤츠 SUV 라인업의 완성.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와 함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Tel.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LA 45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640kg, 자동7단), 복합연비: 9.1km/ℓ(도심연비:8.3km/ℓ,고속도로연비: 10.4km/ℓ), 등급:5등급, 복합CO2 배출량: 192g/km · GLC 220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958kg, 자동9단), 복합연비: 12.9km/ℓ(도심연비:11.6km/ℓ,고속도로연비: 15.1km/ℓ), 등급:3등급, 복합 CO2배출량: 148g/km · GLC 250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9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11.4km/ℓ,고속도로연비: 14.7km/ℓ), 등급:3등급, 복합CO2배출량: 151g/km ·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95kg, 자동9단), 복합연비: 8.1km/ℓ(도심연비:7.5km/ℓ,고속도로연비: 9.0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217g/km · GLE 250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2,280kg, 자동9단), 복합연비: 11.1km/ℓ(도심연비:10.4km/ℓ,고속도로연비: 12.2km/ℓ), 등급:4등급, 복합CO2배출량: 173g/km · GLE 350d 4MATIC (배기량: 2,987cc, 공차중량: 2,350kg, 자동9단), 복합연비: 9.7km/ℓ(도심연비:9.0km/ℓ,고속도로연비: 10.8km/ℓ), 등급:4등급, 복합CO2배출량: 200g/km · Mercedes-AMG GLE 63 4MATIC (배기량: 5,461cc, 공차중량: 2,520kg, 자동9단), 복합연비: 5.8km/ℓ(도심연비:5.2km/ℓ,고속도로연비: 6.8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306g/km · GLE 350d 4MATIC Coupé (배기량: 2,987cc, 공차중량: 2,405kg, 자동9단), 복합연비: 10.1km/ℓ(도심연비:9.2km/ℓ,고속도로연비: 11.3km/ℓ), 등급:4등급, 복합CO2배출량: 193g/km · Mercedes-AMG GLE 63 4MATIC Coupé (배기량: 5,461cc, 공차중량: 2,465kg, 자동9단), 복합연비: 6.2km/ℓ(도심연비:5.4km/ℓ,고속도로연비: 7.5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289g/km · G 350d (배기량: 2987cc, 공차중량: 2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7.7km/ℓ(도심연비:7.2km/ℓ,고속도로연비: 8.3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258g/km · Mercedes-AMG G 63 (배 기량: 5461cc, 공차중량: 2635kg, 자동7단), 복합연비: 5.2km/ℓ(도심연비:4.8km/ℓ,고속도로연비: 5.8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342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